

“세단의 반격이나 SUV의 수성이나”가 관전포인트

美 디트로이트 모터쇼 개막

현대·기아차, 폴체인지 신형 벨로스터·포르테 세계 첫 공개
도요타, 아발론 5세대 무대 올려
아우디, 신형 A7스포츠백 선보



기아차가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공개한 올 뉴 K3 렌더링 전측면.



현대차 신형 벨로스터 렌더링 이미지.

세계 5대 모터쇼 중 하나인 '2018 북미 국제 오토쇼'(NAIAS·디트로이트 모터쇼)가 개막했다. 디트로이트 모터쇼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인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새해 첫 포문을 여는 행사인 만큼 글로벌 자동차 업계와 대중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는다.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모터쇼는 픽업트럭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열풍 속에 세단의 반격이 눈길을 끈다.

◆현대·기아차 등 세단 시장 공략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SUV 인기가 여전한 가운데 일부 완성차 브랜드들은 세단을 전면에 내세우며 반격을 예고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대표적이다.

현대차는 15일 프레스테이 행사를 통해 7년 만에 풀체인지된 신형 해치백 벨로스터를 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신형 벨로스터는 외관 디자인의 쿠페 느낌이 더욱 강해졌고 지붕 높기와 주행성능이 1세대 모델보다 개선됐다. 1.4 터보, 1.6 터보 등 두 가지 가솔린 엔진 모델의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차례로 내놓을 계획이다.

기아차는 같은 날 6년 만에 풀체인지된 거친 신형 '포르테(올 뉴 K3)'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신형 포르테는 기존 K3의 역동적인 디자인 콘셉트에 볼륨감과

고급감을 더해 '업스케일(고급) 다이내믹 세단' 이미지를 구현했다.

이 외에도 도요타는 대형 플래그십 세단 아발론의 5세대 모델을 무대에 올렸다. 6년 만에 풀체인지를 거친 아발론은 전면부에 화려해진 LED 헤드램프 등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됐다. V6 3.5리터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300마력 이상의 힘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는 7년 만에 풀체인지된 신형 A7 스포츠백을 공개한다. A6의 차대와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개발된 4도어 쿠페로, 3.0리터 V6 TFSI 가솔린 터보 엔진

과 7단 자동변속기가 결합해 최고출력 340마력, 최대토크 51.2kg·m의 힘을 발휘한다.

BMW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스포츠 카인 신형 i8 쿠페를 선보인다. 신형 i8 쿠페는 엔진과 전기 모터 합산 출력 369마력의 강력한 성능을 갖췄다. 최고속도는 249km/h에 달하고 제로백은 4.2초에 불과하다.

◆픽업트럭·SUV 잇따라 공개

완성차 브랜드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SUV 라인업 강화에 집중한다.

GM 쉐보레는 '실버라도'의 신모델을

선보인다. F-시리즈에 밀려 만년 2위였지만, 이번엔 차체 무게를 줄이고 디자인을 바꾸며 1위 자리를 노린다. FCA 역시 '램1500'의 풀체인지(완전변경) 모델을 공개하고, 포드는 중형 픽업트럭인 신형 '레인저'를 공개할 예정이다. 레인저는 쉐보레 '콜로라도', 도요타 '타코마' 등과 뜨거운 경쟁이 예상된다.

지프는 중형 SUV '체로키'의 페이스 리프트(부분변경) 버전을 선보인다. BMW는 신형 SAV(Sports Activity Vehicle)형 '뉴 X2'의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진행한다. 'X1'과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면서도 쿠페 형태의 더욱 수려한 외관이 특징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46년 만에 풀체인지한 'G-클래스'를 공개한다. 전면 디자인은 1세대 모델을 그대로 계승했고, LED 헤드램프·범퍼 등이 부분 변경됐다.

렉서스는 차세대 크로스오버 'LF-1 리미트리트' 콘셉트카를 선보이며, 혼다의 고급브랜드인 '아큐라'는 중형 SUV 'RDX' 3세대 프로토타입을 공개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IoT로 국내 첫 도시가스 배관망 관리

LGU+, 삼천리와 스마트 시스템 구축
NB-IoT 기술 활용한 최초 서비스



모델들이 밸브실 모듈과 스마트 배관망 관리시스템 관제 화면을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종합에너지기업 삼천리와 국내 최초로 협대역 사물 인터넷(NB-IoT) 기반의 스마트 배관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시가스 지하시설에 NB-IoT 기술을 활용한 산업용 관리 서비스 구축은 국내 최초다.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삼천리 도시가스 공급구역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한 바 있다.

스마트 배관망 관리시스템은 배관의 상태를 원격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도시가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도시 지하 곳곳 가스 밸브실에 구축된 NB-IoT 단말을 통해 가스누출이나 맨홀 내 침수 여부를 관제실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 가스배관의 상태를 확인하는 '테스트 박스'에 설치된 NB-IoT 단말을 통해 배관 부식상태와 외부 환경으로 인한 배관의 전기적 간섭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도시가스 시설 안전점검 시 인적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우려돼 왔다. 회사 측은 NB-IoT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리인력이 직접 현장에 출동하지 않더라도 관제센터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가스 배관망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전국 시·도 지역에 NB-IoT 전용망 구축을 완료한데 이어 산업시설 등의 시설물 관리 및 가스, 전기 등 원격 점검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티웨이항공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수속 개시

출발 3시간 전까지 수속 마쳐야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티웨이항공의 탑승 수속이 가능해진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17일 오전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입주 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속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최초로 개통되는 도심공항터미널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을 타기 위해 KTX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혼잡한 인천공항의 수속 대기 줄을 기다릴 필요 없이 광명역 자체에서

탑승 수속과 수하물 탁송, 출국 심사까지 한번에 가능하다.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탑승 수속과 수하물 탁송, 출국심사의 절차를 제공한다. 단 당일 항공기 출발 3시간 전까지 수속을 마쳐야 한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탑승 수속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서울역과 광명역의 도심공항터미널 서비스를 통해 인천공항의 접근성이 더욱 개선되면서, 해외 여행의 큰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양성운 기자

삼성SDI, 북미서 전기차 대중화 선도

美 디트로이트 모터쇼 참가

고용량·급속충전 혁신소재 등
첨단 배터리 대거 선보여

삼성SDI가 미국 '2018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참가해 전기차 대중화를 선도할 고용량, 급속충전 혁신소재와 첨단 제품을 대거 선보였다고 15일 밝혔다.

삼성SDI는 20분 급속충전 기술을 접목해 최대 60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용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셀을 중심으로 37, 50, 60, 94Ah 등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세대별 배터리 셀 라인업을 선보였다.

/오세성 기자 sesung@

특히 삼성SDI는 이전보다 용량은 45% 높이고 충전속도는 5배 빠른 '그래핀 볼' 소재와 용량 및 안전성을 동시에 개선하는 '전고체 전지'도 소개했다. 전고체 전지는 최근 네이처지에 논문으로 게재된 바 있다.

다양한 디자인의 고객 맞춤형 배터리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원하는 용량만큼 모듈 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다기능배터리팩(MFM 팩)은 하나의 팩으로 다양한 주행거리 차량을 설계할 수 있다. 배터리 셀 높이를 획기적으로 낮춘 '로우 하이트 셀', 기존 18650 배터리 대비 용량을 50% 향상한 '21700' 원형 배터리 셀 및 모듈 등도 공개됐다.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광주' 설립 본격화

1500여평 최대 규모 준비

네이버가 서울, 부산에 이어 광주에 1500여평에 달하는 최대 규모로 '파트너스퀘어 광주'를 설립한다. 네이버는 이를 통해 호남권 스톱비즈니스와 창작자들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과 성장동력 발굴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15일 네이버는 광주광역시 금남로 인근 지역에 위치한 1500여평의 7층 건물을 매입해 '파트너스퀘어 광주'를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세부 공간 구성과 내부 인테리어 콘셉트를 계획하고 있다.

네이버의 파트너스퀘어는 스톱비즈니스와 창작자들의 창업과 성장 동력을 이끄는 오프라인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설립 5년차를 맞이한 파트너스퀘어 역삼과 왕십리 스튜디오에는 지금까지 25만명의 사업자가 이용했으며, 지난해에만 6만6000명이 다녀갔다.

네이버는 파트너스퀘어 광주를 이용자들이 직접 스톱비즈니스와 창작자들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토어, 사용자 체험 프로그램 등 복합 비즈니스 문화 공간



파트너스퀘어 부산 모습.

/네이버

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먹거리가 풍부하고, 공예 등 예술적 전통이 깊은 호남권의 특색을 활용한 푸드 및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스톱비즈니스와 창작자에 특화된 스튜디오 구성과 성장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 푸드윈도 입점 비율을 보면 전라도권 사업자들이 전체 36%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호남권의 '파트너스퀘어 광주'와 충청권 '파트너스퀘어 대전'이 설립되면, 부산과 서울을 포함해 전국 4곳에 파트너스퀘어가 구축된다.

/김나인 기자



美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삼성SDI 모델이 다양한 배터리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SDI

SKB-디즈니 컴퍼니 3D 애니메이션 '칼리메로' 방영

SK브로드밴드는 'Btv'를 통해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애니메이션 '칼리메로(사진)'를 독점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칼리메로는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일본 제작사 테레비 도쿄와 프랑스 제작사 가몽이 3D CG로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알의 껍질을 머리에 쓰고 있는 검은 병아리 캐릭터 칼리메로와 친구들이 펼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칼리메로는 이날부터 B tv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디즈니채널(채널번호 171번), 디즈니주니어(채널번호 172번)에서 방영된다. 본 방송 후 30분 내 B tv 주문형비디오(VOD)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